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찌하면 부처가 되겠노?”

마음씨 타령 ⑥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소화를 하려면 있다 죽다 돌을 다 버려야 해.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똥똥 버려 버리고 나중에 산 거를 굴리고 죽는 거를 굴리고 있는 거를 굴리고 없는 거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차차차차 이것이 납득이 갑니다. 이것이 납득이 가면 그때는 삼계를 뛰어넘습니다. 이 지구뿐 아니라 육계 세계 무색계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탁 벗어나 버려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대강 여러분도 아, 그러리라 아실 텐데, 실로 이런 얘기는 말로서 이해시켜 안 됩니다. 죽도록 해서 자기 의견을 내서 말을 해봤든 전부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을 때 내 말을 신중하지 마세요. 그러나 버리지도 마세요 내 말을. 하하하. 왜 그러느냐? 내가 진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뭣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은 하느냐. 부처님도 진짜 말을 못합니다. 죽도록 했자 그 진리의 그 지도리의 그림자를 붙잡고 이렇고 이렇다는 이 정도지, 어찌 부처님이라고 해서 진짜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부처님이 진짜 말을 하겠더라면, 하실 수가 있었더라면 말 한마디만 딱 하셨을 겁니다. 어찌서 팔만대장경이 나왔겠습니까? 그러하니 부처님 말씀이 곳에 가서 이런 말 하고 저 곳에 가선 저런 말 하고 다닙니다.

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좌우간 어떻든지 상승설법은 들어놓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덕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금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강송] 알과 모름 뛰어넘은 본바탕이라
이 자리는 마음씨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뛰어 넘은 본바탕이라

[강송] 지견에다 옳그름을 풀이안하면
지견으로써 이견 옳다 저견 그르다 풀이를 안 하면은, 지견으로써 이견 이렇고 저견 그르다 풀이를 하지 않아. 지견 그대로만 간직해둬.

반상이라. 그 생각 자체가 부처라. 부천데 이걸 모르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말이죠. 내가 나의 앞길을 막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한 고비 넘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어찌하면 나는 공부 되겠노. 이 생각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한 고비 넘은 사람들 얘깁니다. 실로 육조같은 그런 분은, 혜능같은 그런 분은 아주 무식쟁이란 말이죠. 무식쟁이고 상놈이고 못나고, 세상에 이 지구에서 나쁜 건 전매특허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슬기자라기 밝았어. 아, 그만 당장 자기 마음에 알아버렸단 말이죠. 참 이상한 거여. 칠백 명인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노? 예, 저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은 상놈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너 땅개가 어찌 왔노? 나 부처 되려 왔습니다. 너같은 땅개 부처가 돼?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몸은 스님하고 내 몸하고 다릅니까? 성품자리는 하나 아닙니까? 아, 너 굉장하 날카롭구나. 일어나 나가거라... 그렇게 말할 때는 법은 이 사람에게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팔 개월 동안이나 방아 쪼기를 안 했습니까? 설법 한 번도 못들어 보고 조실 스님이 어느 방에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삼계를 벗어나는 단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법의 도리는 당장 이해 안 가도 몇 십년 후에 깨닫는 씨앗이 되니 들어두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된다.”

[강송] 어즈버야 모든반연 녹아서니
지화자자 줄을씨고 물달도뉘네
물에 달이 환하게 밝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래 이래 하니 이래 이래한 거 아닌가 하는 지견풀이를 절대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면 나는 공부가 되겠노? 이어서 여러분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하면 공부가 되겠노 이렇지만은 그 생각이 말이죠 공부를 짓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나는 어찌하면 부처가 되겠노? 이거 고질병입니다. 나는 어찌하면 공부가 되겠노?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말이죠 바로 대도자리, 열반자리요 보리상인데 보리상을 자기가 턱 일으켜. 나는 어찌하면 공부가 되겠노? 나는 어찌하면 부처가 되겠노? 하는 그 생각, 그 생각 자체가 보리상이라.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열

그런 분들은 근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전생에도 공부를 했던 모양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살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화신이라 해도 좋고 상관이 없거든요.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는 전생 후생이 없습니다. 이것도 영동한 말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몸 나투기 전에는 전생이 몸 나투기 이것은 현재 죽고 나서 몸 없으면 후생이라 하는데, 이거는 껍데기 몸통이 이것 파도, 이것이지 참말로 여러분들이 그 몸통이, 꼬집고 다니는 그 자리에 전생이 어딴습니까? 오늘이 어딴으며 내일이 어딴으면 천 년 전이 어딴으며 만 년 후가 어딴습니까? 알아들었나? 말해 봐요. 전생 후생이 있느냐 말이죠. 나 이름을 모르겠다. 한 번 말해보란 말이여.

그러나 이걸로 봐선 안돼요. 이걸로 봐서는 내가 이 방에 나올 때와 지금 내가 다닙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기쁜 마음으로 발심하고 정진하자

이렇듯 인간다운 생활을 주장한 원효 대사는 또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이 거저 농사를 짓는다, 장사를 한다, 공부를 한다, 이러는 것이 병신 같기도 하고, 얼빠지고, 못난 짓 하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도 속으로 생각이 있고 한번 숨겨 둔 모순이 튀어나오는 날에는 아무공능 응기설화 유여천고(雖無功能 應機說話 猶如天鼓)라는 말을, 즉 비록 어느 때는 그 사람에게 무슨 공이 있는지 무슨 천재적인 포부가 있는지 알 수 없더라도 어떤 기회에 당도하여 툭 말리 떨어질 때에는 뇌성벽력 같은 소리가 난다.

학문하는 선비나 수행인이나, 지조를 지키는 남자나, 여자나, 이와 같은 이들이 자기 처지에서 기어이 자신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발표할 경우에는 벽력보다도 더 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이다. 총향전에서 총향이는 기생의 딸로서 제 자신도 결국 한낱 관기(官妓)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한 말은 하나하나 이 작품을 통해 뇌성벽력 같은 말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향기로운 말들을 전원을 통해 말해 준다. 이런 진리를 원효대사는 간파(看破)하였다. 무리(無理)한 가운데에 지극한 이치가 있고, 그러잖은 사회에 크게 그러한 일이, 참으로 만세상이 놀랄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이어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된다. 감사하다, 은혜를 갚겠노라는 이 소리는 '나는 사람 노릇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다. 사람다운 구실을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일인가.

그의 마음과 행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알뜰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이나 무아미타불로 요약되고, 열불하는 거기에 일체의 계율과 선행은 다 포섭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포섭의(包攝之義)가 있고 총섭해서 말씀하다 그 원리에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으냐.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아미타불(南無至心歸命禮 西方阿彌陀佛) 원공제중생왕생안락국(願共諸衆生 往生安樂國)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 다시 말하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루 하루의 일과를 어떤 거룩한 이와 더불어 의논해 본다. 여기 조목 조목을 다시금 들어 본다면 열 가지 일을 하게 된다.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여 예배드리고 모든 부처님과 중생에게 널리 지공하여 공양을 지어 올리고 업장을 참회하고, 청불 주세하고, 천천 법문하고, 상수 불학하고, 항상 중생의 마음을 따라 수순하고, 이렇게 하기를 널리 닦아 나가는데, 이 허공계가 다 들어 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으냐.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마음 따라 수순하고 업이 다해 번뇌 다할 때까지 불도를 닦으면 된다. 잠이 오거든 자고 잠이 깨거든 염불하라”

우리는 항상 행(行)과 원(願)을 빌해 나가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조금도 실증 없이 언제든 이를 기쁨으로서 이룩한다. 기쁘다는 생각을 할 동안은 정진을 하고 싶고, 싫증은 날리 없다.

‘이이고, 뭐 그따위 것을 다 하라고 해?’ 할 때면 벌써 거기에 기쁜 마음이 없다. 게으름이 불고, 퇴폐해지고 허무한 데에 사로잡힌다.

그러므로 이런 부질없는 생각일랑 버리고, 항시 기쁜 마음으로 신심(信心)을 발하고 발심(發心) 정진할 따름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 노릇하는 일이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며, 이렇듯 일상생활을 통해 이를 행동화하고 끝내 성취한다는 것이다. 주야육시(六時)로 간단 없이 생각하여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지속을 갖는다. 이를테면 하루 24시간 내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잠은 언제 자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얘기가 있다. ‘아이구, 스님, 염불하라 하시는데 잠이 오네요.’ ‘잠이 오거든 자고, 잠이 깨거든 염불하라’ 이것이 자나 깨나 염불하는 생활인 것이다.

이로써 총체적 결론을 마무리하며 행원래의 해설을 전부 끝낸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전집·축사 3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다. 홀로 높은 것이다. 독존의(獨尊之義)가 있다. 만 인간이 이 길을 밟아야 된다. 이 길에 이르러 비로서 다들 돌아와 나무하고, 합장하고, 절할 수 있는 귀취지(歸趣之義)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염불이란 가장 쉬우면서, 탄탄한 대로이고 틀림이 없어 백도(白道)라는 것이다. 우리말로는 ‘한길’이란 뜻이다. 탄탄한 넓은 길을 밟아 가면 그만이다.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선을 한다고 죽을 노릇을 다해 애를 쓰거나 불교의 학문을 하느라고 교리가 이러니 저러니 논하거나, 또 어려운 계율 같은 것을 지켜야 남이 우러러 본다는 등, 그렇게 하는 난행도(難行道)를 해 나가고들 있다.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 이행도(易行道), 아무라도 다 되는, 아이·어른·남자·여자·지위 높은 사람·낮은 사람·병신이거나 누구라도 다 갈 수 있는 이 평탄한 길만큼 안태하고 믿음직스런 길은 다시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지심귀명례 서방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반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기반을 통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기반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뚝이 늘 빠르던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산 폭발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희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문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